



동서화합 불교운동

대구경북본부 창립

조계종 5개 본사 참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권을 각성시키고 화합과 통일... 조계종 대구·경북지역 5개 교구본사가 나섰다.

직지사 동화사 은혜사 고운사 불국사가 참여하는 동서화합불교운동 대구·경북본부는 3일 대구불교방송 7층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합본부는 은혜사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대구·경북의 사찰과 신도, 불교단체가 연합하여 오는 10월 17일 대구·경북지역의 불교인과 호남지역의 불교인이 함께 동참하는 대규모 창립발기회를 갖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31사단 군법당 기공

60평규모 10월 완공



광주·전남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 31사단 군법당 신축발기인대회 및 기공식이 7월 27일 광주 일곡동 군법당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사진)

법회에서 군법당추진위원장 천운스님은 "광주·전남지역 장병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게 하기 위해 군법당을 건립하게 됐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31사단 군법당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당 60평, 요사채 40평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날행사는 천운(항림사 조실) 현지(송광사 주지) 광민(무각사 주지) 동환(태고종 광주종무원장) 월인(법륜사 주지)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이춘범 광주광역시회의회장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미륵사 복원 발원 법회

익산 관음사 청년회

익산시 관음사 불교청년회(회장 최희수)는 7월 24일부터 25일 까지 금마 익산수련원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청년회원 1백50여명은 미륵사지 복원을 염원하는 한마음법회를 개최하고, 미륵산과 미륵사지에 안내 표찰을 부착하고 환경정화활동과 체육행사 등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동해안에 부는 신행바람

강동 20여단체 연합회 준비... "사회봉사 강화"

동해 불교회관 건립... 교사·기사 불자회 추진

동해안을 축으로 하는 영동지역에 불교바람이 불고 있다. 양양 속초를 아우르는 강릉불교계가 최근 신도단체 연합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고 동해시에서는 교사·운전직등 직장·직능불자회가 결속을 꾀하고 있으며 유치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불교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영동지역 불자 5천7백여명이 자발적으로 풍채 동해시에 설립한 원화불자새마을금고(이사장 최수철)는 165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강릉불교신행단체연합회 준비위는 14일 오후 3시 강릉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강원불교대 강릉지역 동문회, 보리방송모니터회 강릉지부, 아산재단 강릉병원 불교동아리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연합회 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사회봉사와 사회참여등을

동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매일 1회 연합법회를 열어 연말까지 20여개 단체의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2개 신도회와 4개 신행단체가 속해있는 동해불교신도연합회(회장 전영규)는 연말까지 교사불자연합회와 운전기사불자회 등 전문직 불자모임을 창립해 조직을 확대하고 불교유치원이 들어서는 불교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동해불교신도련은 불자들이 임시일당으로 모은 4천만원의 기금으로 동해시 창곡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매일 정기법회와 크스님초청 강

연회를 열고 있다. 또 봉사대를 조직하여 사찰주변환경정화에 나서는 한편 방학중에는 학생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삼척과 동해에 환경경비초소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오염물투기 방지 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불교대 강릉동문회 황희재회장은 "영동지역의 불교세가 타지역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화하고 단합으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겠다"며 "최근 영동지역 불교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opia.com)



하와이 대원사는 11년간 끌어온 법정소속 승소로 한인문화원 건축을 재개한다. 사진은 공사기 중단됐던 한인문화원 전경.

하와이 대원사 '11년 송사' 승소

법원, 주민고소 기각...한인문화원 건립 재개

11년간 지역주민들과 사찰건립 문제로 법정소송을 해온 하와이 대원사(주지 도현)가 7월 11일 하와이주 순회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14년전 대원사가 건립되면서 주민들과 분쟁이 시작돼 급기야 11년전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며 건축이 중단된 한인문화원들이 사당과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됐다.

하와이주 순회법원 밀크스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판결에서 6명

의 배심원들은 "대원사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담장 훼손과 사찰의 경내소용, 법정허용치 9피트를 초과한 문화원지붕으로 인해 1백16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불충분 하다"며 주민들의 고소를 기각시켰다.

주지 도현스님은 "법원의 판결에 기호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드워반부분을 열지 않고 문화원이 완공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용호 가정봉사교육원

1기생 94명 배출

부산 용호복지관 부설 용호가정봉사원 교육원(원장 혜충)에서는 7월 22일 복지와 강당에서 제1기 가정봉사과정 가정봉사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배출된 94명의 가정봉사원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생애 등에 파견되어 가정봉사 활동을

펼치게 되며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점수지속제도에 따라 노후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원장 혜충스님은 "질적으로 향상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용호가정봉사원 교육원은 매일 한차례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동화사 발전기획단 발족

복지·포교·종무행정·장학 등 쇄신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가 8월 중으로 전문자문위원과 지역 승·재가 원로로 구성되는 동화사발전기획단을 결성하여 중·장기발전 계획을 내놓는다.

문화 복지 법률 환경등 분야별로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 자문위원들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와 일반인들의 신심고취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21세기 불교대중화에 걸맞은 교구운영이나 종무행정의 틀을 구축하고 구별신도회 조직, 장학재단 설립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 상임포교사제도를 운영하여 일반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불교를 안내하고 청소년포교 특수포교 법회관리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사 기획국장 지도스님은

"지난해 중단분류로 발전계획안 마련이 계속 늦춰졌다"며 "기획단의 발전안에 대해서는 사부대중의 공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전북 불교자원봉사단

노인위문·이미용 봉사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은 6월 30일 창립이후 첫행사로 31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펼쳐진 제 6회 안산골연꽃 예술제에 참가하여 이·미용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와함께 노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위문봉사과 점심공양을 대접했다.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은 금사사를 주축으로 각 시군에 10~30명 단위로 구성된 36개 지단이 있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전서' 인터넷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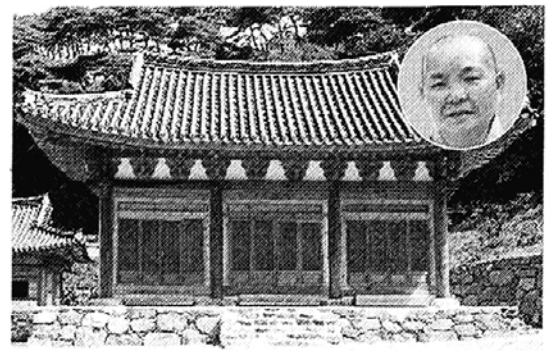
동국대 불전연구실

<한국불교전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실(소장 보광스님)은 7월 27일 동국대에서 전자불전연구실의 홈페이지(http://ebti.dongguk.ac.kr)의 한국불교전서 검색코너 시연회를 개최하고 사업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코드편집기와 검색엔진 등을 자체 개발한 연구실은 현재 시범으로 <한국불교전서> 4책의 일부인 보조전서와 대각국사 문집을 전자화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불교전서 전자화를 위해 97

년 12월 설립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실은 불교자료 종합전산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2월 동국대경인 불교문화연구원 정각원 도서관 등과 함께 불교자료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사업으로 이달부터 한국불교전서 1책과 4책을 모두 전자화하고, 앞으로 1년내 2책씩 전자화작업을 전개해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불교전서 도서관 멀티미디어사이버법당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실은 오는 10월 '21세기 불전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국내 최초의 전자불전학술회의도 개최한다. 강지연 기자

우리절 불사 화엄사 금정암



91년 화재로 전소된 금정암 대웅전 복원불사가 착공 9년 만인 올 10월 회향된다. 원안은 주지 각심스님

화재로 잃은 대웅전 복원

착공 9년만에 10월 낙성

원통전·요사채도 건립

구례 화엄사 금정암(주지 각심)에서는 5백년 역사를 담아내는 불사가 고즈넉히 진행중이다. 불사의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란함은 찾아 볼 수 없다. 산세만큼 넉넉하게 진행되어온 불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심스님이 요란한 불사를 꺼리는 까닭이기도 하다.

1562년(조선 명종 17년)에 화엄사에서 선교를 강설하던 설운스님에 의해 창건된 금정암은 91년 화재로 본당이 전소되자 화재이후 각심스님과 혜광스님은 복원불사를 발원하고 91년 땅정리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불사가 9년째 접어들어 올해 10월 10일이면 낙성을 갖는다.

본사인 화엄사의 부처님 사리탑이 바라보여 자연스레 친견, 참배할 수 있는 이곳에 마침내 심경당, 직묵당, 원통전이 복원된 것이다. 요사채인 심경당과 직묵당은 35평, 15평 규모로 일반불자들에게도 개방돼 공부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지

는 25평의 원통전은 기도와 정진의 터전이 될 것이다. 각심주지스님과 함

해광스님은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불사를 해왔다"며 "사람이 가련 그림자가 따르듯이 공은 원을 세우면 불사는 저절로 성사된다"고 강조했다. 길고 긴 불사기간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오히려 신심은 더욱 깊어진다든 것이다. 새롭게 지어진 당우들의 자태가 임자에 살고 있는 스님과 닮아 맑고 단아하다. 10월 회향을 앞둔 금정암은 지리산 반불자들에게도 개방돼 공부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제공된다. 또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지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수입콩, 농약콩으로부터 탈출선언. 우리 콩으로 콩나물, 두부, 청국장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귀찮지 않느냐구요? 아닙니다. 시장가는 것보다도 간편합니다. ◎두부틀 겸용 콩나물(새싹)재배기 (실용신안 111965-113676호) - 자화 출수식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규격: - 종로구 80cm x 40cm, - 그외 지역 110cm x 55cm, - 개인소유지: 제한없음. 재질: 스텐레스. 허가 대행 및 A/S. 신성기획 TEL: (02)3141-3789

수맥 탐사.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집을 지십시오. 아래의 경우에는 수맥에 의해 나타나는 피해 증상입니다. 1. 장기간 수행으로 인하여 관절염, 근육통, 요통, 우울증, 말초 순환이 심히 고생하시는 수맥자. 2. 잠을 자고 나도 피로 회복이 안되고 몸이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홍몽을 자주 본다). 3. 우울증이 생기며 대인 공포증이 생길 때. 4. 질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 5. 노력해도 수입능률이 오르지 않고 주위가 산만해지며 정신 집중을 못하고 쉬 피로를 느끼며 신경질적인 학생에게. 6. 오십년,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요통등 증세가 생길 때. 금강수맥원 송파구 거여1동 135-67(201호) (02)400-619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숨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명명: 無生子)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55호 탐공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호원빌딩 50호 대표전화: (02)2275-5592~3 핸드폰: 018-277-5592